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내일, 지속가능한 미래

2024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사업 연차보고서

Leave no one behind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직업기술교육을 받고 있는 동티모르 여성 학습자



함께,
누구나 '좋은 교육'을
받는 세상

목 차

감사의 글	05
-------	----

후원자님과 만든 더 나은 '미래'	10
--------------------	----

교육 격차 완화: 유네스코 브릿지 사업	12
-----------------------	----

미래 변화 대처: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	24
-----------------------------	----

사회·문화 갈등 해소:	26
--------------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역량강화 워크숍	
----------------------	--

70GETHER(투게더) 모금캠페인 론칭	28
------------------------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 10주년 페스타	30
-----------------------	----

후원자님과 '미래'를 향한 동행	32
-------------------	----

세븐틴과 함께하는 고잉투게더 캠페인	34
---------------------	----

유네스코 프렌즈 소개	37
-------------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친선대사 활동	43
-------------------	----

스마일게이트 유네스코 브릿지 스리랑카	45
----------------------	----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	
--------------	--

학교 나눔활동 이야기 & 함께해 주신 후원자님	46
---------------------------	----

학교 나눔활동 이야기	48
-------------	----

후원자 명단	52
--------	----

후원금 모집 및 사용	59
-------------	----

후원 캠페인 소개 및 참여	62
----------------	----

아이들의 눈에는 세상이 온통 가능성으로 빛납니다.
조금은 서툰고 작은 손으로,
미래를 향한 커다란 꿈을 조심스럽게 쥐고 있습니다.

그 꿈은 언어도, 국경도, 환경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자신만의 빛나는 별 하나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별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배움이라는 빛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아이들의 길을 함께 밝혀주는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1948년, 세상이 약속한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세상,
배움 앞에 어떤 차별도 없는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입니다.

요르단 독서교육대사 교육 활동

감사의 글



후원자님과 함께 만든 변화, 그리고 다음 70년을 향한 동행

지난 한 해 동안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였습니다.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해 인류 공동의 평화를 실현하고자 씬 없이 걸어온 여정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그 길 위에서 '더 나은 미래'란 무엇인가를 다시금 깊이 숙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마주한 주요 과제들을 직시했습니다.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으로 상징되는 환경과 기술의 급격한 변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교육 기회의 불균형, 그리고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문화적 갈등 등.

이에 우리 위원회는 새로운 70년을 맞아, 이러한 전례 없는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하며, 모두를 위한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상호 이해와 공존의 가치를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실천적 여정의 시작입니다.

2024년,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시작한 '70GETHER(투게더)' 캠페인은 우리가 추구하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고민을 행동으로 옮기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천은 아래와 같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첫째, 참여와 나눔의 장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의 연결을 확장했습니다.

'개도국 교육 지원 걷기 캠페인', '후원 10주년 페스타', 유네스코학교와 함께한 'Dream 드림 캠페인', 그리고 다양한 장소에서 운영된 홍보 부스는 교육, 평화, 공존의 메시지를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국제 연대를 기반으로 교육 및 문화 협력을 활발히 이어갔습니다.

동티모르와 말라위 등 개발도상국 내 지역학습센터 건립과 운영, '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 국제 포럼, 그리고 세계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등은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의 연대가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다양한 파트너들의 동참은 우리의 활동에 새로운 동력을 더해주었습니다.

세븐틴(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스마일게이트, 친선대사 이영애 님과 양방언 님, 새롭게 위촉된 유네스코 프렌즈(축구 국가대표 이재성 선수와 인플루언서 성해은 님)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과 기관이 함께하며,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통한 나눔의 가능성과 확산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후원자님의 따뜻한 참여와 지지가 있었습니다.

후원자님의 응원은 '배움이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씨앗이 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과 지구촌 곳곳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그 믿음에 응답하며, 다음 70년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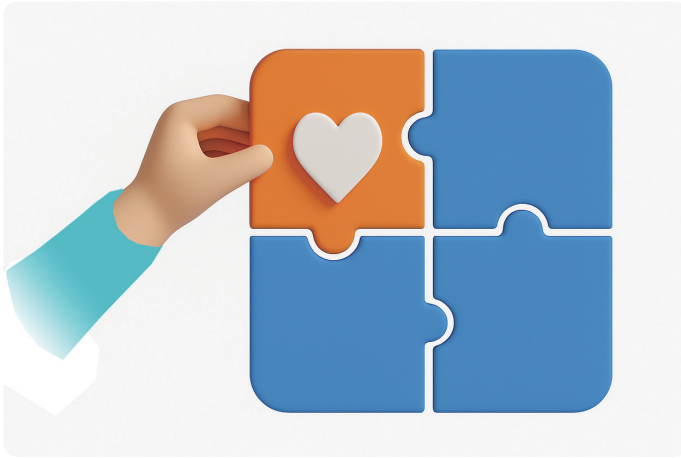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

유명준

기부자님의 후원이 만드는 변화의 여정

- 기부자님의 소중한 후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실천



• 사회적 성과



 학습 능력 향상

 사회적 참여 증진

 국제적 이해 및 연대 강화

• 장기적 영향

 미래 변화 대처

 교육 격차 완화

 사회·문화 갈등 해소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이행

2030년까지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누리도록 전 세계가 함께 이루어 나갈 공동의 약속입니다.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해 이 목표들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교육 격차 해소(목표 1: 빈곤 퇴치, 목표 4: 양질의 교육, 목표 5: 성평등, 목표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미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역량 강화(목표 9: 산업·혁신·사회기반시설, 목표 13: 기후행동), 그리고 사회·문화적 갈등을 완화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목표 10: 불평등 감소, 목표 16: 평화·정의·강력한 제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 노력은 후원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더욱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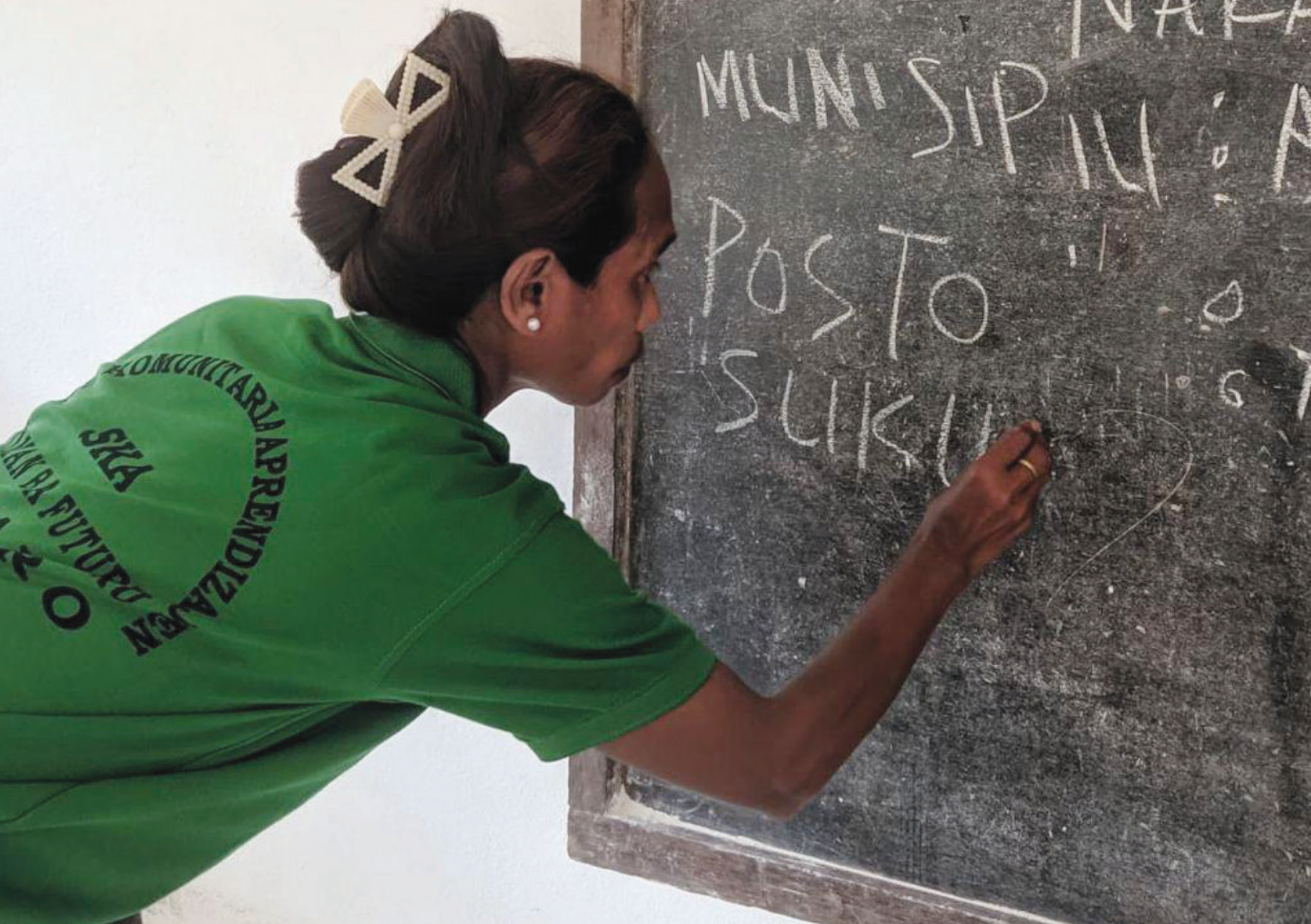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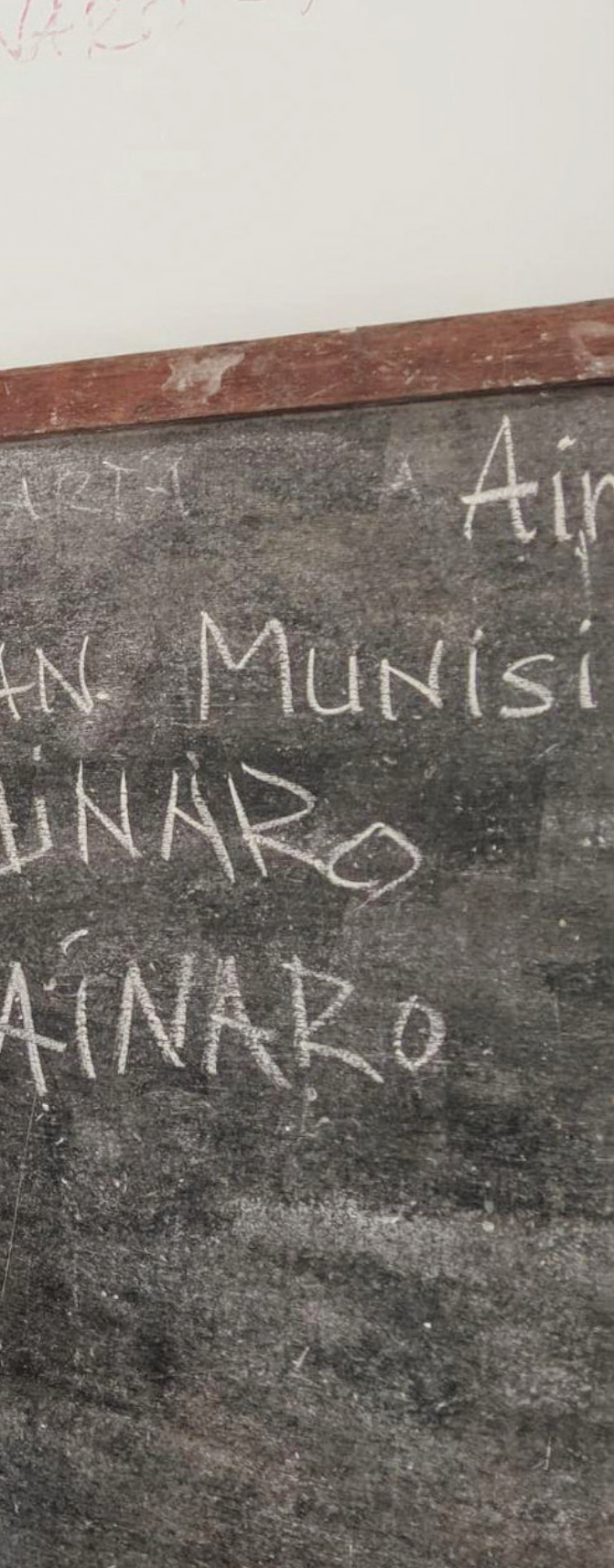
후원자님과 만든 더 나은 '미래'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그리는 미래는,
모두가 양질의 교육을 동등하게 받고,
변화하는 미래에 바르게 대응하며,
사회·문화적 갈등을 이해와 연대로 풀어가는 세상입니다.

2024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러한 본질적 과제에 주목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유네스코 브릿지 동티모르 아이나로 지역학습센터 문해교실 학습자



교육 격차 완화: 12
유네스코 브릿지 사업

미래 변화 대처: 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

사회·문화 갈등 해소: 26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역량강화 워크숍

70GETHER(투게더) 28
모금캠페인 론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 30
10주년 페스타

교육 격차 완화: 유네스코 브릿지 사업

유네스코 브릿지가 걸어온 길

교육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지난 11년 간 한결같이 함께해 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의 꾸준한 응원과 나눔 덕분에 전 세계 수많은 이웃들이 꿈을 품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브릿지의 시작

1999년 서울에서 열린 특별한 자선공연.
팝스타 마이클 잭슨의 무대로 모인 수익금이
'삼성-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기금'으로
조성되어 2000년 개발도상국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브릿지의 시작

이후 10년간 교육 지원을 이어가며, 학교에 다니지 못해
기초교육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들을 위해 '교육은 기회의 다리'라는 뜻을 담은
'브릿지'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2010년 아프리카 소외지역에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해
청년활동을 파견한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 그리고
2012년 아시아의 유네스코 세종문화상 수상기관과
협력한 '브릿지 아시아'를 통해 지역학습센터 기반
문해교육과 직업기술교육을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변화·과학교육(2011-2015)도
함께 지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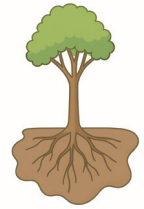
브릿지의 성장



더 좋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브릿지 프로그램은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2013년 우리나라 정부와 시민사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브릿지를 교육부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전환했고, 2014년부터는 일반 대중 대상
후원 모금도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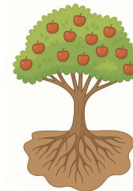
2015년에는 협력국 파트너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 경험을 나누고 배우는
'브릿지 워크숍'을 시작했고,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협력의 장으로
지금까지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국제사회-현지 정부-지역사회가 함께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각 협력국의 유네스코국가위원회(교육부)가 사업을 주도하는 체계로 재정비했습니다.



브릿지의 도약



그렇게 쌓아온 1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는
더 장기적이고 큰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는 '브릿지 2단계'
사업을 업그레이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3개국에서 시작된 브릿지 2단계는 아프리카와
중동까지 뻗어나가 7개국에서 지역학습센터를 넘어 전국
단위의 교육 정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표 비형식교육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브릿지. 브릿지는 오늘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현실로 만들어갑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교육이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 국민의 손에 빵이 아닌 책을 쥐어준 것이 유네스코였고,
대한민국은 교육의 힘으로 불과 반세기 만에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래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던 우리처럼
누구든 배움으로 삶의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구촌 소외된 이들을 위해 브릿지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브릿지는 지난 15년간(2010-2024) 24개 국가에서 171,719명을 위한 배움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브릿지 사업 국가: 24개국

아시아 지역: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아프리카 지역: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르완다,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잠비아, 짐바브웨

중동 지역: 요르단

남아메리카 지역: 우루과이

오세아니아 지역: 솔로몬군도

15개년 성과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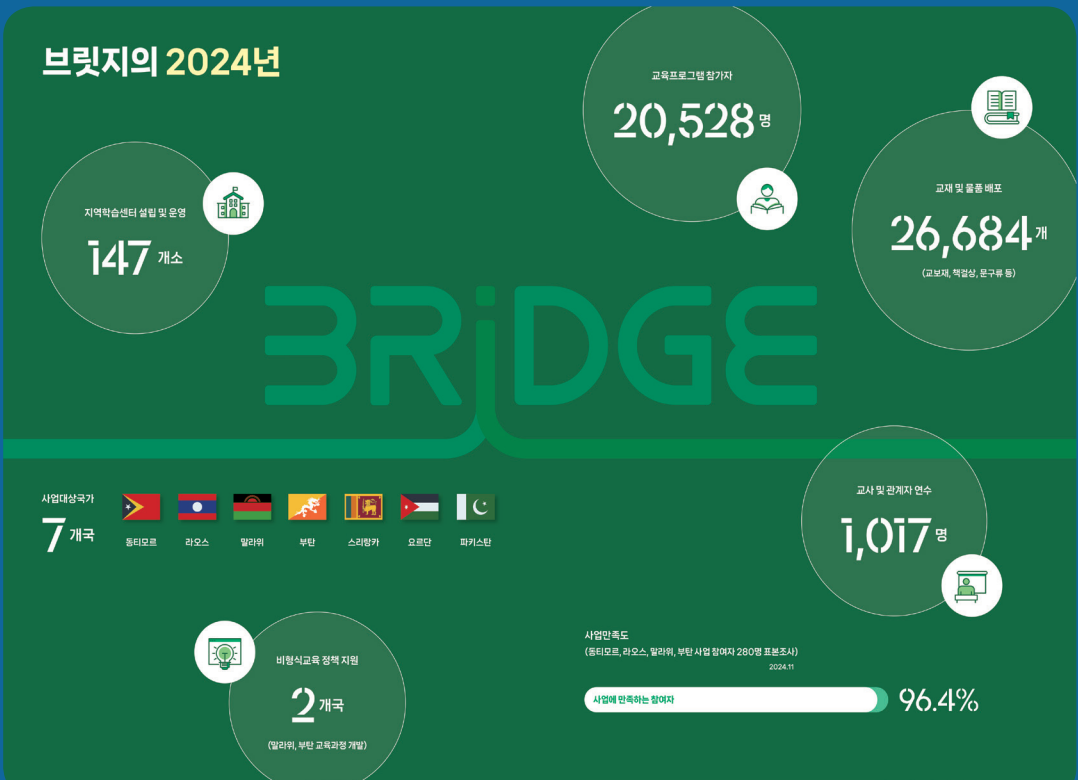
-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 **161,114명**
- 역량이 강화된 교사: **10,605명**
- 교육물품 지원: **179,790개**
- 파견된 청년전문가: **55명**

기여한 지속가능발전목표



2024년도 브릿지 성과

사업대상국가	7개국 동티모르, 라오스, 말라위, 부탄, 스리랑카, 요르단, 파키스탄
비형식교육 정책 지원 (교육과정 개발)	2개국 (말라위, 부탄)
지역학습센터 설립 및 운영	147개소
교육프로그램 참가자	20,528명
교재 및 물품 배포 (교보재, 책걸상, 문구류 등)	26,684개
교사 및 관계자 연수	1,017명
사업 만족도 (동티모르, 라오스, 말라위, 부탄 4개국 사업 참여자 280명 표본조사 / 2024년 11월 시행)	사업에 만족하는 참여자 96.4%



바다와 산의 나라, 배움이 자라는 섬: 동티모르(Timor-Leste)



수도: 딜리(Dili)

인구: 약 134.1만 명 (2022, World Bank)

언어: 테툼어 및 포르투갈어(인도네시아어도 사용)

면적: 14,954km²

종교: 천주교(97.57%), 개신교(1.96%), 이슬람교 등

1인당 GDP: \$2,389.30 (2022, World Bank)

사업성과



지역학습센터 설립

2개소



지역학습센터 운영

15개소



교육프로그램 참가자
(문해, 학력인정, 컴퓨터, 기초직업훈련)

2,663명



교사 및 관계자 연수

152명



교재 및 물품 배포

2,921개

사업진행경과: 2020-2024 / (예정)2025-2029

주요 활동과 사업 특징

열강들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난 지 불과 스물세 번째 해, 교육을 통해 젊은 동티모르의 미래를 밝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전국 곳곳에 지역학습센터를 설립했습니다. 2024년에는 그룹 세븐틴과 함께 진행해 온 '고잉투게더(#GoingTogether)' 캠페인의 일환으로 2개의 센터를 추가로 지으며 5년간 총 15개 센터건립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지역학습센터에서는 매년 2,500여 명이 글을 배우고, 외국어 및 컴퓨터 수업을 들으며 놓쳤던 교육의 기회를 되찾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학습자 407명이 초등 학력인정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븐틴과 함께 한 고잉투게더 캠페인 후원금으로 신규 설립된 리파우 레오아 지역학습센터(Lifau Raeoa CLC)와 개소식



테툼어 문해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과 성인 학습자

꺼이 막 히엔! (나는 배우는 게 좋아요!): 라오스(Laos)



수도: 비엔티안(Vientiane)
인구: 752.9만 명 (2022, World Bank)
언어: 라오어 및 프랑스어
면적: 237,955km²
종교: 불교(70.7%), 기독교(1.7%),
무종교/무신론(31.4%)
1인당 GDP: \$2,054.43 (2022, World Bank)

사업성과



지역학습센터 운영

30개소



교육프로그램 참가자
(문해, 학력인정, 기초직업훈련)

1,116명



교사 및 관계자 연수

60명



교재 및 물품 배포

3,700개

사업 진행경과: 2020-2024 / (예정)2025-2029

주요 활동과 사업 특징

산간 지역에 위치한 30개의 지역학습센터에서 경제적 형편이 나 먼 통학거리로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도 학력인정교육을 통해 초등 및 중학교 졸업장을 받게 되었고, 문해교육과 함께 목축, 수공예, 조리 등 기초 직업훈련을 받은 성인들은 소득도, 자신감도 높아졌습니다.

낮엔 학교에서, 저녁엔 지역학습센터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헌신이 교사 연수로 갈고 닦여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투게더 걷기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을 라오스의 교육 지원을 위해 기부하며,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2025년부터 브릿지 라오스는 새로운 지역에서 또다른 이들에게 교육기회의 다리를 놓아주게 됩니다.

<학습자 인터뷰>

성명: 알리 / 거주지: 땡케오 마을 / 나이: 11세 / 학년: 초등학교 5학년



"공부는 저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브릿지 지역학습센터가 생기기 전, 저는 학교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부모님의 생계를 돕기 위해 매일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벅창기에, 공부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글을 읽고, 무언가를 배운다는 건 제 삶과는 먼 이야기였죠.

"이제 저는 글을 읽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브릿지 지역학습센터가 마을에 생긴 날, 제 인생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글자를 배우고, 문장을 읽고, 수를 세

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수학도 배우고 있어요. 지금의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배움입니다. 특히 과학 수업은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눈을 바꿔주었어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아이가 아닙니다.

"저는 꽃을 기르고 판매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 꿈은 꽃을 키우고, 판매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예전의 저라면 불가능했을 꿈이지만, 지금은 조금씩 그 꿈에 다가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이곳 지역학습센터에서 배운 글자로 책을 읽고, 정보를 습득하고,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는 직업훈련도 받고 싶어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을 배우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오스 마을 지역학습센터에서 문해교육을 받는 아이들과 수공예 기초 직업훈련을 받는 여성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 교육으로 뛰다: 말라위(Malawi)



수도: 릴롱웨(Lilongwe)

인구: 약 2041만 명 (2022, World Bank)

언어: 영어 및 체와어

면적: 118,484km²

종교: 기독교(80%), 이슬람교(13%) 등

1인당 GDP: \$645.16 (2022, World Bank)

사업성과



지역학습센터 운영

4개소



교육프로그램 참가자
(문해, 학력인정, 유아교육)

2,324명



교사 및 관계자 연수

100명



비형식교육 전문학사 과정
운영

1개



교재 및 물품 배포

13,000개

사업진행경과: 2021-2025

주요 활동과 사업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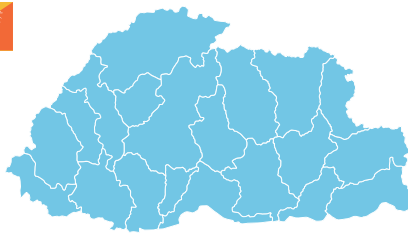
세계에서 가장 빈곤이 심각한 나라 중 하나, 말라위에 세워진 4개의 지역학습센터. 글을 몰랐던 어른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아이들은 노래하듯 산수를 배우며 내일을 꿈꿉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지는 교실이 있어 엄마들이 마음 놓고 일터로 갈 수 있는 하루가 열립니다.

비록, 2023년 사이클론 '프레디'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세븐틴은 교육 시설 재건과 학습 물품 지원에 참여하며 아이들이 다시 배움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마고메로 대학과 함께 만든 비형식교육 전문 학사 과정을 통해 자라난 배움의 씨앗들은 다시 (누군가를 가르치며) 또 다른 배움을 꽃피우고, 그렇게 희망의 순환이 말라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릿지 프로젝트로 피어난 이 작은 기적들은, 빈곤을 딛고 삶을 다시 써 내려가는 말라위의 새로운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 방과후교육 참여 아동들



수도: 팀부(Thimphu)
인구: 약 78.25만 명 (2022, World Bank)
언어: 종카어
면적: 38,394km²
종교: 티베트 불교(74.8%), 힌두교(22.6%),
민속 신앙(1.9%) 등
1인당 GDP: \$3,560.20 (2021, World Bank)

사업성과



비형식교육 정보관리체계 운영

1종



지역학습센터 개보수 및 운영

29개소



교육프로그램 참가자
(문해, 기초직업훈련)

3,159명



강사 및 관계자 연수

400명

사업진행경과

선행사업 2015-2019 / 현사업 2020-2024(종료)

주요 활동과 사업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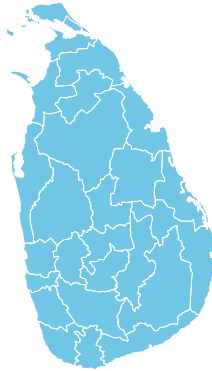
사업 초기 구축한 비형식교육 정보관리 체계(NFE-MIS)와 비형식교육 전략을 바탕으로 부탄 지역의 지역학습센터 체계와 역량은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문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강사들에게 NFE-MIS와 신규 교육과정 활용 교수법 연수를 지원했습니다. 교실과 설비가 개선된 센터에서 학습자들은 글과 직업기술을 배우며 자신과 가족뿐 아니라 마을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시작된 부탄 사업은 2024년을 끝으로 종료되어, 2025년에는 사업 성과가 현지 주도로 지속, 확장될 수 있도록 사업의 관리와 이전을 도왔습니다.



부탄 지역학습센터에서 문해 교육과 직업기술교육을 받는 여성과 아이들

교실 속 작은 진주들, 인도양을 밝히다: 스리랑카(Sri Lanka)



수도: 스리자아와르데네푸라코테(입법)(Kotte),
콜롬보(경제/행정/사법)(Colombo)
인구: 약 2,218만 명 (2022, World Bank)
언어: 싱할라어, 타밀어 및 영어
면적: 65,610km²
종교: 불교(70.2%), 힌두교(12.6%),
이슬람교(9.7%), 기독교(7.4%) 등
1인당 GDP: \$3,354.83 (2022, World Bank)

사업성과



지역학습센터 설립

3개소



지역학습센터 운영

21개소



교육프로그램 참가자
(기초문해, 중등교육, 기초교육,
재소자 교육, 태블릿 기반 교육)

5,800명



교사 및 관계자 연수

7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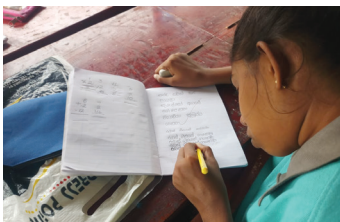
디지털 학습 기기 보급 수

20대

사업진행경과: 2024-2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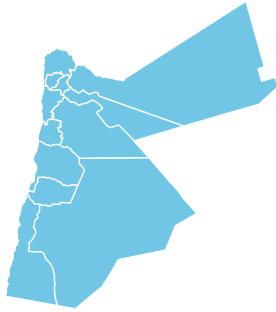
주요 활동과 사업 특징

스리랑카 전역 21개 지역학습센터를 통해 배움의 기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공교육에서 이탈했던 학습자들은 문해교육과 중등교육 과정을 통해 다시 학습을 이어가고, 기초 직업훈련과 진로 설계교육을 받으며 취업 및 창업을 통한 새로운 미래를 꿈꿨습니다. 재소자와 약물중독자의 교정 및 치유 맞춤형 교육은 사회 복귀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올해 시범 도입된 태블릿 기반 기초교육은 디지털 학습 경험을 넓히는 계기가 되어, 교사들은 연수를 통해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인식도 개선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포용적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일게이트에서도 오픈스쿨 지원을 통해 스리랑카의 교육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문해교육과 태블릿을 활용한 기초교육을 통해 디지털 학습에 참여하는 스리랑카 지역학습센터 학생들

책 읽는 소리로 페트라의 시간을 깨우다: 요르단(Jordan)



수도: 암만(Amman)

인구: 약 1,129만 명 (2022, World Bank)

언어: 아랍어

면적: 89,342km²

종교: 이슬람교(90%), 그리스도교(8%) 등

1인당 GDP: \$4,311.00 (2022, World Bank)

사업성과



도서 낭독 세션 개최 횟수

4,935건



교육프로그램 참가자 수

3,042명



교사 및 관계자 연수

139명



교재 및 물품 배포

4,602개

사업진행경과

2024-2028

주요 활동과 사업 특징

비형식 문해교육 모델인 '위 러브 리딩(We Love Reading)'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요르단 전역의 가정과 커뮤니티 공간에서 도서 낭독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아동 교육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역 여성들은 '독서교육 앰배서더'로 참여해 낭독 교육과 온라인 연수를 받았고, 아이들은 이들의 목소리를 따라 글자를 익히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키워 갔습니다. 성평등,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사회 주제를 담은 동화책을 자체 발간·배포하며, 책을 통해 나누는 이야기의 폭도 점차 넓어졌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들이 책 읽는 시간은 가정을 넘어 지역으로 확산되고, 배움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요르단 '독서교육 앰배서더'에게 낭독 및 문해 교육을 받는 아이들



수도: 이슬라바마드(Islamabad)
 인구: 약 2.385억 명 (2022, World Bank)
 언어: 우르두어 및 영어
 면적: 881,913km²
 종교: 이슬람(96.03%), 힌두교(1.85%)
 그리스도교(1.59%) 등
 1인당 GDP: \$1,588.88 (2022, World Bank)

사업성과



지역학습센터 운영

48개소



교육프로그램 참가자 수
 (문해, 기초직업훈련)

2,424명



교사 및 관계자 연수

96명

사업진행경과

2024-2028

주요 활동과 사업 특징

편자브 주 4개 지역, 48개 지역학습센터에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은 문해교육을 통해 읽기, 쓰기, 계산 능력을 익히며 일상 속 자신감을 회복했고, 모바일 사후교육으로 학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초직업훈련에서 익힌 바느질, 자수 등 지역 수요에 맞춘 기술로 일부 학습자는 소규모 창업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청년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리더십 역량을 키운 지역 청년들은 마을 주민 대상 교육활동을 직접 이끌고 있습니다. 이동식 도서관, 디지털 허브, 권리 인식제고 캠페인은 평생학습 기회가 더 많은 주민들에게 닿도록 돕고 있습니다.



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고 있는 학생들과 기초직업교육, 문해교육을 받는 여성들

미래변화대처: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

미래를 위한 교육, 연대를 통한 희망의 길을 열다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유네스코 본부, 교육부,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전 세계 56개국 교육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 청년 및 시민 2,8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실행을 촉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연대의 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네스코가 2021년에 발간한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 보고서』를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에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사흘레 워크 주드 전 에티오피아 대통령(왼쪽 사진)과 스테파니아 지아니니 유네스코 교육사무총장보(오른쪽 사진)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에서는 사흘레 워크 주드 전 에티오피아 대통령, 스테파니아 지아니니 유네스코 교육 사무총장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함께 무대에 올라, 교육이 인류 공동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교육의 평등성 증진 ▲기술 혁신을 통한 포용적 교육 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을 주제로, 각국의 정책과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켰습니다. 특히, 각국의 교육 정책과 연구, 실천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글로벌 옹저버토리' 설립이 공식 발표되면서, 교육 분야에서의 글로벌 협력 기반이 한층 공고히 다져졌습니다.

함께 만드는 참여형 캠페인, '7OGETHER'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운영한 창립 70주년 캠페인 '7OGETHER' 홍보 부스

포럼 기간 동안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창립 70주년 캠페인 '7OGETHER'를 소개하는 특별 부스를 운영하며, 위원회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비전을 시민들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교육 보고서를 상징하는 '책 모양의 달고나'를 부서지지 않게 완성한 참가자들에게는,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장을 지낸 사흘레 워크 주드 전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담긴 실물 보고서가 증정되어 현장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포럼 첫날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행사도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내외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가 지난 수십 년간 평생학습과 지속가능발전교육 확산에 기여한 성과를 되짚고, 앞으로의 도약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친선대사 양방언 님이 헌정곡 '우리, 희망, 평화 그리고 유네스코(We, Hope, Peace and UNESCO)'를 최초로 연주하며 참석자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이번 포럼을 통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교육이 지닌 변혁의 힘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국제 사회와 손을 맞잡아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걸음을 힘차게 내딛었습니다. 한경구 사무총장은 "이번 포럼은 교육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의지를 모으는 뜻깊은 계기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을 통해 모두가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은 교육이 단지 지식을 전하는 수단을 넘어, 기후 위기와 기술 격차,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대의 도구임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세계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문화 갈등 해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역량강화 워크숍

어느 노인의 기억이 인류 공동의 지혜가 되기까지

1962년 유네스코 회의에서 아프리카 말리 출신의 작가 아마두 함파테 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노인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 이 짧은 문장은 아프리카 대륙의 역사와 문화가 얼마나 많은 구술 전통 위에 놓여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노인들이 지닌 기억과 지혜는 글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세대를 이어 구전되며 아프리카 사회의 정신과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아마두 함파테 바 재단은 이 기억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가 남긴 미발행 원고와 자료들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하기 위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계적 중요성', '진정성', '완전성'이라는 등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신청서를 준비할 시간과 자원도 필요합니다. 현재 세계기록유산 496건 중, 아프리카 유산은 단 35건뿐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존재하는 기록의 불균형을 보여줍니다.

기록의 불균형을 넘어서기 위한 작은 다리



2024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역량강화 워크숍 개막식 참가자 단체사진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09년부터 '세계기록유산 역량강화 워크숍'을 주최해왔습니다. 특히 등재 경험이 적은 국가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등재 준비를 도와, 그들의 유산이 세계인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이 워크숍은 7년 만에 다시 아프리카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유네스코의 글로벌 우선순위인 '아프리카'와 '성평등'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50여 개국에 초청장을 보냈고, 그 중 11개국의 공공기관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워크숍 현장

아프리카의 목소리를 기록하다

참가자들이 제출한 기록물에는 아프리카의 고통스러운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세네갈의 19세기 노예 무역에 희생된 노예 명부, 가나 독립운동가 콰메 은크루마의 연설 녹음본, 튀니지의 여성 인권 기록 등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존엄과 기억의 증거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식사 시간도 아껴가며 전문가들과 함께 등재 신청서를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아크라까지의 긴 여정에도 모두들 지치지 않았고, 오히려 준비팀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준비과정의 수고를 모두 잊게 만들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도서관"이 사라지지 않도록



The Balme 도서관에서 디지털 기록 보존 현장을 견학하는 워크숍 참가자

워크숍의 마지막 날에는 가나 국립대학 도서관, 아카이브, 디지털센터 등 기록유산 보존 기관을 답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 과거의 자료들이 어떻게 미래로 전해지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각국 참가자들은 기록 보존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아프리카 대륙의 소중한 유산을 보호하고, 기록물 담당자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의미 있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특히 동 사업은 기록유산 보존을 넘어,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과거의 아픈 기억을 치유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를 넓혀가는 데에도 뜻깊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앞으로도 모든 기억이 존중받고, 인류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유산들이 잊히지 않도록, 조용하지만 꾸준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그 길을 함께 걸겠습니다.

70GETHER(투게더) 모금캠페인 론칭

여러분의 70GETHER 참여가 만들어갈 더 나은 미래

기후 위기, 교육 격차, 사회 갈등 등 한 국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는 서로의 지혜와 연대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24년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새로운 70년을 맞이하며 '70GETHER'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통해 모두가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고 만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우리는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교육 격차를 줄이며, 사회와 문화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작지만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상흔 속에서 교과서 인쇄공장을 세워준 유네스코의 손길부터, 지속가능발전과 평생교육, 세계유산이라는 새로운 가치들을 소개해온 지난 시간들처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앞으로도 '바람직한 미래'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미래를 바꾸는 일, 유네스코 Future Maker가 되어 주세요

미래를 만든다는 것은 단지 내일을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오늘의 마음과 행동을 모으는 일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후원한다는 것은 모두가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세상, 다양성이 존중받고 공존이 가능해지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선택입니다.

당장의 위기를 넘는 도움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들여 더 멀리, 더 깊이 바라보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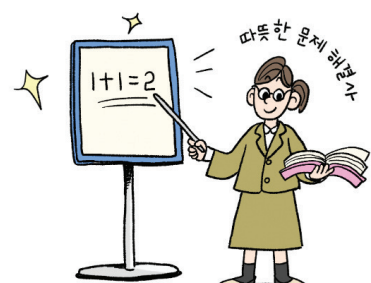
지금 이 순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유네스코 Future Maker'가 되어 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바로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에 함께해 주세요.



2024년 한해 동안 펼쳐온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소개합니다

함께 미래를 만드는 첫 걸음! '기부성향테스트' 이벤트 실시(6월-7월)

2024년 6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부성향테스트'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들은 '미래의 위기에 대처하는 나의 성향'을 알아보는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기부 성향을 확인하고, 후원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여정에 참여했습니다.



캠페인 가치 확산을 위한 '투게더 브레이슬릿' 론칭(7월)

투게더 브레이슬릿은 '미래 변화 대처', '교육 격차 완화', '사회·문화 갈등 해소'라는 캠페인의 핵심 분야를 후원하는 이들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손목 위에 새기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유네스코 로고의 모티브이자 평화를 상징하는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을 형상화한 디자인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론칭은 단순한 굿즈를 넘어, 후원자가 직접 미래 변화를 이끄는 동반자임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월 2만 원 이상 정기후원 시 브레이슬릿을 통해 그 연대의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의 미래를 위한 투게더 걷기 캠페인 개최 (10월-11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더 나은 교육의 미래를 위한 국민 참여형 '투게더 걷기 캠페인'을 2024년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6주간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캠페인 티셔츠를 착용하고 원하는 장소에서 7km를 자유롭게 걸은 후 SNS에 인증사진을 올렸으며, 캠페인 참가비 전액은 라오스 교육 소외 지역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의 사전 행사로서, 국민들이 교육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고, 참여자들 가운데는 다양한 부문별 수상자도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걷기 캠페인은 교육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의 미래를 위한 따뜻한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 10주년 페스타

함께해 주신 10년, 감사의 마음을 담아

2024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후원모금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 아낌없이 마음을 보태 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후원 10주년 페스타'를 개최하였습니다. 2014년 첫 후원모금 이후, 위원회는 교육의 기회가 절실한 전 세계 아이들과 공동체를 위해 꾸준히 걸어왔으며, 이 길의 중심에는 언제나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신 후원자님들이 계셨습니다.

이번 페스타는 단순한 기념을 넘어,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여의 기쁨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유네스코 네 글자로 창의적인 4행시를 짓는 4행시 챌린지, 후원 계기와 이야기를 공유하는 후원 사연 공모, 그리고 10년차 장기 후원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투게더 브레이슬릿'을 증정하는 특별 선물 신청까지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우수작 선정 - 4행시 부문

♥ 우수작 / 이*주 후원자님

유 리얼처럼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너!
네 가 더 아름다운 이유는
스 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소중한 후원을
따뜻한 마음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야
코 리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 우수작 / 한*수 후원자님

유 네스코 한국위원회는
네 개분야(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에
스 스로 참여하고 있는 후원자들과 함께
코 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 우수작 / 홍*우 후원자님

유 정란
네 개로
스 크램블, 후라이, 삶은달걀, 오믈렛
코 스요리를 즐기고 싶다!

♥ 우수작 / 장*영 후원자님

유 독 반짝이는 당신의 마음이
네 모난 세상을 둥그랗게 만들고
스 머드는 온기로 우리가 하나되어
코 끝 쫓한 감동을 나눕니다.

♥ 우수작 / 김*식 후원자님

유 네스코 후원사업 10주년을 축하합니다.
네 (내)년에도 후원 페스타가 지속되고,
세상의
스 토리를 담아내어
코 스모스의 꽃말처럼 조화로운 세상이
되도록 세계평화와 발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작 선정 - 후원사연 부문(한*수 후원자님)

Q.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10년간 함께해 오시면서, 후원 활동이 후원자님의 삶에 어떤 변화나 영향을 주었는지, 그동안의 소감을 나눠주세요.

A. 교육은 “한나라의 백년지 대계”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보다 더 크게 눈을 돌려서
지구촌의 빈민층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사업에
모범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
한국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Q.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하며 느꼈던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이었나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유네스코 지구촌 교육 나눔 활동이나 후원 경험을 통해
어떤 감동을 받으셨는지 이야기해주세요.**

A. 아프리카의 가난한 국가의 아이들은 글자를 배우지 못해 문맹자가 많습니다.
글자도 모르고 답답하게 살고 있었는데
우리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헌신적인 브릿지 활동으로
학교도 지어주고, 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쳐주는
교육 사업을 열심히 해왔던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인하여 아이들이 글자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체였지만 정말 감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작지만 내가 후원하는 노력이 이렇게 큰 결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후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Q.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대한 기대나 바람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후원을 망설이는 분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앞으로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지금 같은 열정과 사명감으로 봉사해줄 것을 확신하며
후원자의 한 사람으로서 미래에나마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후원자로서 보람과 긍지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향한 후원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후원자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후원자님과 미래를 향한 '동행'

2024년, 우리는 교육격차 해소와 사회문화 갈등 완화, 미래 변화에 대한 준비라는
본질적인 과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곁에는 늘 후원자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후원자님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동티모르 지역학습센터 학생들



세븐틴과 함께하는 고잉투게더 캠페인 34

유네스코 프렌즈 소개 37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친선대사 활동 43

스마일게이트 스리랑카 아동·청소년 45
교육 지원

세븐틴과 함께하는 고잉투게더 캠페인

교육의 미래를 향한 따뜻한 연대, #GoingTogether



제13회 유네스코 청년포럼 연설을 계기로 유네스코 본부 청년 친선대사로 임명된 그룹 세븐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글로벌 아티스트 세븐틴과 함께 2022년부터 추진해 온 '고잉투게더 (#GoingTogether)'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의 교육 불평등 해소와 교육의 미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확산하는 데 힘을 모아왔습니다.

2024년에는 특히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 개도국 참가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후원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연대를 실현하였습니다. 이들의 참여는 포럼 논의에 현장의 목소리를 더하는 동시에, 개도국 교육 정책과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 참석하고 있는 개도국 참가자들의 모습

동티모르에 새롭게 문을 연 배움의 공간

이와 함께, 세븐틴의 후원으로 동티모르 리파우 오외쿠시(Oecusse)와 마나투토(Manatuto) 지역에 지역학습센터 2곳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컴퓨터, 재봉, 한국어, 영어 등 생활기술교육과 문해교육이 진행되며, 매년 약 300명의 청소년과 여성, 성인이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신규 설립된 리파우 레오아 지역학습센터 (Lifau Raeoa CLC)와 개보수된 라플루바 지역학습센터 (Laclubar CLC)

디지털 교육 기자재도 새롭게 마련되어, 더 많은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븐틴이 밝힌 “교육은 한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는 포부는 이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결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븐틴의 후원금으로 마련된 컴퓨터 교실과 새롭게 설치된 빔프로젝터 등 다양한 디지털 교육 기자재

재난 속에서도 교육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 말라위 교육 복구 지원 후기

2023년, 초대형 사이클론 프레디는 아프리카 말라위 전역에 큰 피해를 남기며 400개 이상의 학교와 학습시설을 파괴했습니다. 특히, 나미양고와 나피니 지역의 지역학습센터도 큰 피해를 입어 학생들은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에 세븐틴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글로벌 모금 캠페인과 팬 이벤트를 통해 36개국 2만 8천여 명과 함께 피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8천여 명의 '캐럿'들과 함께한 봉봉이체 이벤트 홍보 부스와 지원된 학습 물품에 부착된 후원금 감사 스티커

후원자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기금으로 물에 잠기고 지붕이 뜰어져나간 나피니와 나미양고 지역의 지역학습센터를 빠르게 복구했습니다. 젖어버린 교과서, 공책도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네스코말라위위원회와 협력하여 사이클론으로 피해를 본 학교에 필요한 새 책상과 의자, 칠판이 마련되었고, 전기와 수도도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역학습센터는 일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위한 방과 후 보육기관의 역할도 겸하고 있기에, 10대 범죄와 일탈 행위 등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학습센터에서 지역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제공하는 급식은 영양실조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위 지역학습센터에 도서 및 생필품을 나눠주는 모습과 복구 후 새단장한 나미양고 지역학습센터의 컴퓨터실

교육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세븐틴과 후원자 여러분의 따뜻한 연대로,
무너졌던 교실에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GoingTogether,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입니다.

유네스코 프렌즈 소개



유네스코 프렌즈 위촉장을 든 국가대표 이재성 선수

유네스코 프렌즈 1호로 위촉된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재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창립 70주년 기념 모금 캠페인 '7OGETHER'의 확산을 위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부주장이자 독일 분데스리가 FSV 마인츠 05 소속인 이재성 선수를 유네스코 프렌즈 1호로 위촉하였습니다.

이재성 선수는 유네스코 활동의 가치에 깊이 공감하며, 캠페인의 취지에 동참하고자 프렌즈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위촉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유네스코의 다양한 활동을 알리는 데 힘을 예정입니다.

이재성 선수, 탄자니아 청소년에게 전한 희망의 패스

프렌즈 활동의 일환으로, 이재성 선수는 자선 경매 플랫폼 '채리티옥션'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 전액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기부하였습니다. 해당 기부금은 선수의 뜻에 따라 탄자니아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경매에는 이재성 선수가 독일 리그 경기에서 착용한 축구화, 2026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 이라크전 유니폼, 친필 사인 축구공이 출품되었으며, 낙찰자는 "이재성 선수의 의미 있는 순간을 간직함과 동시에 교육 지원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채리티옥션 경매에 출품된 이재성 선수 친필 사인 축구공

마음도 유네스코 세계유산급" 유네스코 프렌즈 1호, 축구 국가대표 이재성 선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부주장이자 독일 분데스리가 1. FSV 마인츠 05팀에서 맹활약 중인 이재성 선수는 뛰어난 축구 실력뿐 아니라, 평상시 나눔 활동과 축구 유소년들을 위한 공익 활동에도 앞장서는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팬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7OGETHER' 캠페인에 동참하며 '유네스코 프렌즈'가 된 이재성 선수와 특별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이재성 선수, 안녕하세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7OGETHER(투게더) 캠페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유네스코 프렌즈가 된 소감과 각오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네스코 프렌즈로 선정되어 매우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삶 역시 '함께' 이뤄나가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기에, 이번 캠페인의 취지와 딱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투게더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 문화와 다양한 활동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참여를 결심했어요.

Q: 7OGETHER(투게더) 캠페인의 3가지 분야(미래 변화 대처, 교육 격차 완화, 사회문화 갈등 해소) 중에서는 어떤 분야에 제일 관심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세 가지 분야 모두 정말 중요한데요. 그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품을 수 있게 해 줄 (사회문화 갈등 해소) 분야에 특히 눈길이 가요.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독일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레 다양한 문화와 삶의 방식을 접하고 배우게 되면서, 한국 사회에도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잘 정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Q: 본인의 기부 성향 테스트 결과가 '슬기로운 평화주의자'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MBTI 등 자신의 평소 성향과도 잘 맞는지 궁금해요.

제 MBTI는 개개인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타인의 정서를 고려한다고 하는 ISTJ인데요. 기부 성향 테스트 결과가 그런 저의 성향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늘 깊은데, 이러한 마음이 기부 성향에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Q: 투게더 캠페인에 참여하기 전에도 이미 유소년 축구 교육 지원 등 공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나눔에 대한 철학이나 생각이 궁금합니다.

비록 아직 젊지만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나눔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나눔을 통해 더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도 믿어요. 이 캠페인을 계기로 저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여러분도 나눔의 행복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Q: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투게더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국민 걷기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있습니다. 캠페인 참가비는 전액 개도국 교육 및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후원되며, 국민들은 개별적으로 걷거나 달리기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축구선수에게 좀 엉뚱한 질문 같기는 하지만, 혹시 걷기와 달리기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시나요? '투게더 걷기 캠페인'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축구 선수다 보니 걷기보다 달리기가 좀 더 익숙하죠. 사실은 어머니와 산책을 할 때도 30분 이상 걷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걷기보다는 뛰는 걸 더 좋아하는데, 캠페인을 한다면 뛰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도 투게더 걷기 캠페인에 온라인으로 함께할 예정이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Q: 예전에 "내게 하루는 기회이자 위기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늘 평가받고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 프로의 세계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었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게더 캠페인처럼, 확실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미래 세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내는 모든 분들에게 어떤 말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 역시 프로 선수가 되어 매일이 기회이자 위기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모여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했기에, 매일이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유네스코 프렌즈'가 된 인플루언서 성해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창립 70주년 기념 모금 캠페인 '7OGETHER'의 확산을 위해, 13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성해은님을 유네스코 프렌즈로 위촉하였습니다. 유네스코 프렌즈로 임명된 성해은님은 2026년 12월까지 '7OGETHER' 캠페인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성해은님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투게더 팔찌' 및 '투게더 걷기 캠페인' 확산에 함께하며, 미래 변화 대처, 교육 격차 완화, 사회·문화 갈등 해소 등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유네스코의 활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큰 영향력을 지닌 만큼, 유네스코의 가치와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해은님은 "유네스코 프렌즈로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평소 관심이 많았던 기후위기나 교육 문제 등, 미래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할 수 있어 더욱 뜻깊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유네스코 프렌즈 위촉장을 든 인플루언서 성해은



유네스코 프렌즈 성해은 위촉식

긍정 에너지로 세상을 밝히는, 유네스코 프렌즈 성해은

130만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성해은 씨는 진심 어린 소통과 긍정적인 메시지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인플루언서입니다. 모델, 유튜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이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녀는 지난 8월 23일 유네스코 프렌즈로 위촉되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7OGETHER' 캠페인에 동참하며 특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Q: 해은님, 안녕하세요! 승무원, 모델, 유튜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용감한 도전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앞으로 더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지,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거창한 계획보다는, '더 노력하고, 더 잘 하고, 더 신중하게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되돌려 드릴 수 있을 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유네스코 프렌즈 위촉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Q: 유네스코한국위원회 7OGETHER(투게더) 캠페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네스코 프렌즈가 된 소감과 각오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OGETHER 캠페인은 우리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어요.

Q: 7OGETHER(투게더) 캠페인의 3가지 분야(미래 변화 대처, 교육 격차 완화, 사회문화 갈등 해소) 가운데 제일 관심이 가는 분야가 궁금합니다.

세 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저는 특히 '미래 변화 대처'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여러 도전과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준비할지 고민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Q: 해은님은 팬들에게 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주고 계신데요, 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씀해주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나마 누군가의 기분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저에게는 큰 기쁨이죠. 앞으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Q: 평상시 운동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7OGETHER(투게더) 걷기 캠페인'에도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요즘 러닝에 푹 빠져 있어서 7Km 걷기는 저에게 즐거운 도전이 될 것 같아요. 평소에도 한강에서 러닝을 즐기는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즐겨 하는 운동 루틴이 있나요? 7OGETHER(투게더) 걷기 캠페인 전에 하면 좋을 스트레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주일에 네 번 정도 한강을 따라 달리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덥긴 하지만, 밤에 강을 보면서 달리는 것이 참 좋아요. 운동 전에는 스트레칭이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꼭 스트레칭이나 준비운동을 하고 걷기 캠페인에 참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Q: 해은님은 20-30대 연령층에서 높은 인지도와 영향력을 보유한 '청년 대표' 인플루언서이기도 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한 요즘,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청년들이 취업 문제 등으로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인 것 같아요. '나만 믿고 따라가자, 나를 믿자'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힘든 시간이 지나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희망을 잃지 않고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친선대사 활동

희망을 잇는 '투게더 브레이슬릿'의 모델이 되어주신 이영애 친선대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정기후원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기획된 '투게더 브레이슬릿' 촬영에 배우 이영애 친선대사가 모델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영애 친선대사는 지난 2015년부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교육과 평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유네스코의 다양한 메시지를 대중과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이번 촬영에서도 변함없는 진정성과 따뜻한 미소로 현장에 함께해 주시며, 캠페인의 의미를 더욱 빛내 주셨습니다.

촬영은 고즈넉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이영애 친선대사의 품격 있는 모습과 '투게더 브레이슬릿'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인상 깊은 장면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영애 친선대사의 손목 위에서 빛나는 투게더 브레이슬릿

'투게더 브레이슬릿'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기획한 상징적인 기념품으로, 월 2만 원 이상의 정기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팔찌는 '함께(TOGETHER)'라는 단어에 지난 70년의 여정을 더한 '7OGETHER' 정신을 담아, 앞으로도 모두가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의지를 상징합니다.

앞으로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이영애 친선대사가 함께 걸어갈 나눔의 여정에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미래를 만드는 투게더 브레이슬릿 신청하기 →



양방언 친선대사, 창립 70주년 기념 헌정곡 'We, Hope, Peace, and UNESCO' 초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친선대사로 활동 중인 양방언 친선대사께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작곡한 헌정곡 'We, Hope, Peace, and UNESCO'를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이 곡은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평화와 공존, 인류 연대의 메시지를 음악으로 담아낸 작품으로, 지난 12월 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 개최식에서 초연되었습니다.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 환영 만찬



양방언 친선대사 공연

양방언 친선대사는 지난 10년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공연, 통영 유네스코 창의도시 자선콘서트, 음원 기부 등 다채로운 문화 활동을 통해 유네스코의 비전과 철학을 세계에 전파하는 데 기여해 오셨습니다.

헌정곡 초연 이후, 양방언 친선대사는 "유네스코가 전하고자 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어 매우 영광이었으며, 이 곡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유네스코 헌정곡이 담긴 양방언 친선대사의 특별 앨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번 헌정곡이 지난 70년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70년을 향해 나아가는 비전을 음악으로 아름답게 담아낸 소중한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양방언 친선대사의 음악은 유네스코가 전하고자 하는 이상을 예술의 언어로 더욱 깊이 있게 전달하며,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울림을 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와 함께한 스리랑카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

Smilegate® 게임을 넘어, 교육의 기회로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대표 백영훈)는 2020년부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남아시아 지역의 아동·청소년에게 교육 기회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 게임 '에픽세븐' 유저들과 함께 모은 소중한 후원금은, 스리랑카에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되었습니다.



'오픈 스쿨'에서 기초문해 수업 중인 스리랑카 학생들

후원금은 유네스코의 브릿지 프로그램을 통해, 스리랑카 국립교육원이 운영하는 '오픈 스쿨'에 전달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기초 문해 교육과 컴퓨터, 디자인 등 다양한 직업훈련까지 제공해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전역에 총 23개의 오픈 스쿨이 운영 중이며, 약 1,850명의 아동·청소년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교사인 랏나야케 씨는 "한국의 따뜻한 후원 덕분에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픈 스쿨은 단순한 문해교육을 넘어, 생활교육과 컴퓨터, 디자인 등 다양한 직업훈련이 결합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자립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스리랑카 전역에서 총 23개의 오픈 스쿨이 운영되고 있으며, 약 1,850명의 아동·청소년이 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픈 스쿨에 참여 중인 랏나야케 강사는 "한국의 따뜻한 후원 덕분에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에픽세븐' 세계대회 결승전 현장에서는 후원 부스를 운영하고, 유저들과 함께 추가 후원금을 전달하며 교육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와 에픽세븐 유저분들의 따뜻한 마음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교육을 통한 글로벌 연대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앞으로도 모두가 배우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가 지난 8월 31일 개최된 E7WC (에픽세븐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운영한 후원 행사 부스

학교 나눔활동 이야기 & 함께해 주신 후원자님

나눔의 의미를 가슴으로 실천해 주신 학교와 후원자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희망의 씨앗이 되어 오늘도 소중히 자라고 있습니다.
바쁘신 일상 속에서도 함께해 주신 그 마음을 기억하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과 나눔의 가치를 이어가겠습니다.



Dream 드림 캠페인에 참여한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학생들



학교 나눔활동 이야기 48

후원자 명단 52

후원금 모집 및 사용 59

후원 캠페인 소개 및 참여 62

DREAM 드림 캠페인, 학교 나눔활동 이야기

'DREAM 드림 캠페인'은 교내외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전 세계 소외된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희망의 꿈(Dream)을 함께 전하는(드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학교 나눔 캠페인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총 80개 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님들이 세계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희망나눔가게 운영, 저금통 기부, 바자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한 나눔은 세상 곳곳의 소외된 이들에게 교육의 희망과 따뜻한 연대를 전하는 귀한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참여학교 수



희망을 확산하는 Dream 드림 학교 이야기

2024년도 전체 참여교 활동 보러가기(unesco.or.kr/dreamdream) →



벽방초등학교	인천청량초등학교	하늘빛중학교
통영 벽방초등학교는 5학년 '벽방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수업'의 일환으로 전 학년이 참여할 수 있는 '인권 장터'를 열었습니다. 5학년 1학기 벽방인권지킴이 프로젝트 수업은 사회, 도덕, 국어, 미술 교과 교육과정을 '인권' 주제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강사초청 인권 감수성 수업, 담임선생님과 함께하는 '놀이로 배우는 인권' 수업, 인권 관련 연극 대본 쓰기 및 영상 찍기 연습 수업, 인권 픽토그램 만들기 수업, 인권 장터 수업, 학생의 놀 권리 관련 마을강사초청 인권 놀이수업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인천청량초등학교는 생활 자원을 재활용하는 알뜰시장 형식의 나눔 행사를 통해 지구촌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희망을 전하고자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래변화대처, 교육격차완화, 사회문화 갈등해소를 주제로 한 세 가지 코너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지속가능성, 교육의 중요성, 다양성 존중 등 세계시민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늘빛중학교는 지구촌 교육 나눔을 위해 하늘빛 교육공동체의 재능 기부를 기반으로 다양한 부스와 행사를 준비하고 모금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3일간 점심시간에 본교 장미 정원에서 교사, 학생(학년별) 자유롭게 부스를 방문하고, 학생, 선생님, 학부모들의 재능 기부로 만든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부스 기획 과정에서 부스 참가 학생들 대상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교육 불평등, 유네스코 정신 등을 학습하고 해당 취지에 맞는 부스를 직접 기획·준비·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는 지난 4개월간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인권, 평화, 환경 보호, 문화 다양성을 주제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퀴즈 대회와 다화용기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친환경적인 생활 습관을 장려했으며, 세계시민교육주간 퀴즈 캠페인으로 세계 시민으로서의 인식을 높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기부 플리마켓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경험하게 했으며, 저금통 모금 활동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문산수익고등학교

문산수익고등학교는 매년 '애플데이 캠페인'을 통해 DMZ에서 경작된 평화의 사과를 카드와 함께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서로에게 전하고, 판매 수익금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운영에 참여한 학생들은 방과 후에 직접 사과를 세척하고 포장하며 준비하였고, 행사 당일 점심 시간을 활용해 판매를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혹은 학교 프로젝트 형태로 사과와 카드를 주고받으며 친구 간 관계를 회복하고 긍정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인천명신여자고등학교

인천명신여자고등학교는 약 한 달 동안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기부 물품을 모아 'DREAM 드림 희망나눔 가게'를 열었습니다. 기증받은 물품은 새 옷이나 작아진 의류, 신발, 가방, 모자 등의 잡화류, 학생과 성인이 함께 볼 수 있는 다양한 도서, 공책, 연필, 필통 등의 문구류, 그리고 미사용 삼푸, 비누, 화장지, 화장품과 같은 생활용품품을 포함했습니다. 특히 각 반별로는 간식류를 포함하여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물품들을 모아 풍성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성남외국어고등학교

성남외국어고등학교는 6월 6일부터 6월 17일까지 2학년 학생들과 교직원으로부터 다양한 물품을 기부받아 '솔로의 연결' 중고마켓(희망나눔가게)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7월 19일 점심시간, 학생주도 봉사활동인 '나눔클래스' 운영일에 맞춰 1·2학년 학생들과 교사를 대상으로 마켓을 개장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물품 분류, 가격 책정, 홍보와 판매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였으며, 90% 이상 판매율의 수익금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기부하였습니다.



소명여자고등학교

부천 소명여자고등학교는 2학년 창의 경영 교과와 사업계획 수립 과정(사업 환경 분석, 마케팅 전략, 판매 계획 등)을 실천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유네스코 지정기념일과 연계한 '희망가게'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총 24개 매장을 구성해 3일간 점심시간 동안 1·2학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매장별로 유네스코 지정 기념일을 소개하고 병두경 재활용 키링, 세계음식 등 다양한 제품을 기획·제작하였습니다. 판매 수익금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기부함으로써 활동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나눔의 의미도 되새겼습니다.



미림여자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에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유네스코 주간 중, 5일차에는 '지속가능한 장터'가 열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학생회 주도로 기획·운영되었으며, 1·2학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주일간 판매 물품을 준비해 장터를 꾸렸습니다. 다수의 교사들이 현장을 함께하며 안전하게 운영되었고, 교사들도 물품 기부를 통해 적극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학교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이 장터는, 신입생에게는 의미 있는 첫 경험이 되었고, 2학년 학생들은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행사를 주도해 주었습니다.



2024년 'Dream 드림 캠페인' 우수 활동교에 감사패 수여



2024년 Dream 드림 캠페인 우수활동교 트로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24년 'Dream 드림 캠페인'의 우수 활동교로 선정된 벽방초등학교, 인천청량초등학교, 하늘빛중학교,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인천명신여자고등학교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들 학교는 알뜰시장 개최, 인권지킴이 프로젝트 운영,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천 활동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추진했으며, 이에 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받았습니다.

올해도 보다 많은 학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캠페인 활동 결과를 제출한 모든 학교에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며, 캠페인 종료 후 우수 활동 학교를 선정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명의의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니 많은 학교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를 통한 나눔의 실천

서울사대부설여중, 시집 인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기부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는 국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창작한 시를 모아 발간한 시집 『안녕, 하고 시를 만났다』의 초판 인세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기부하였습니다. 해당 시집은 전교 3학년 학생 100명이 참여해 만든 작품으로, 단순한 수업 결과물을 넘어 학생들이 내면의 이야기를 시로 표현하고, 창작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2024년 11월 발간된 이 시집의 인세 전달식은 12월 13일 서울 중구 유네스코회관에서 열렸으며, 시집 지도교사인 최인영 교사와 함께 김유림, 김효원, 류아림, 정영하, 오서운, 박해민 학생이 대표로 참석해 기부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최인영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로 풀어내고, 이를 통해 나눔까지 실천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다”고 전하며, 이러한 경험이 더 많은 학생들에게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학생 류아림은 “친구들과 함께 시를 쓰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고, 내가 쓴 시가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고 교육에 도움이 된다니 큰 의미로 다가온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부금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교육 지원 활동에 소중히 사용되어, 전 세계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쓰일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기부는 최인영 교사의 세 번째 인세 기부로, 2022년에는 서울사대부설학교 교사들과 함께 『격차를 넘어』 시집 인세를, 2023년에는 경북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백마디 고마움』 시집의 인세를 각각 기부한 바 있습니다. 창작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전통은 앞으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함께해 주신 후원자님

교육의 힘은 무한합니다.

교육은 우리의 눈을 밝히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게 하며, 그 꿈을 현실로 만듭니다.
지난 10년 동안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모두가 좋은 교육을 받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액후원

기업 ※ 누적 고액 후원기업 포함

세븐틴(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주)코젠바이오텍	(주)오오씨엘코리아	(주)대흥포장	

개인 ※ 누적 고액 후원자 포함

김성환, 이문순 (주)환성그룹 회장 내외 (동아프리카 우간다)		한성구, 한경구, 한준구, 한홍구, 한승미 일조각 창립자 고(故) 한만년 자녀 일동	
김광호	양방언	이명이	

정기후원

유네스코 Future Frontiers(10년 이상 후원자)

개인

강규한 강대성 강동진 강문선 강미영 강병규 강보성 강상원 강윤서 강준호 강지원 강춘근 강혜영 강효정
강희숙 계세협 고건우 고남균 고미정 고유경 고진아 공성필 박미진 박우실 박재운 구영미 권다윤 권미숙
권미희 권오목 권의재 권혁연 기미라 김경범 김경섭 김경희 김귀배 김기태 김길현 김남규 김남춘 김다현
김대복 김대식 김동선 김동진 김동철 김동호 김두현 김마로 김면수 김명신 김문원 김문정 김미성 김미연
김미정 김미현 김미화 김민정 김민호 김병길 김병노 김병호 김병훈 김복한 김부열 김상만 김상종 김상훈
김선영 김성민 김성순 김성훈 김수미 김수연 김수정 김수현 김수환 김숙희 김승범 김아람 김아리 김아영

김양욱	김영관	김영복	김영진	김영찬	김영희	김예숙	김옥	김옥신	김용배	김용선	김원식	김원철	김유남
김윤자	김은경A	김은경B	김은영A	김은영B	김인철	김인하	김자이(연세교회)	김재학	김정경	김정민	김정순	김정연	
김정옥	김제이	김준구	김지수	김지오	김지용	김지현	김진성	김진웅	김창대	김철민	김철호	김태우A	김태우B
김태천	김필선	김해자	김현진	김현순	김현아	김현정A	김현정B	김현주	김현철	김형준	김형중	김형춘	김혜경
김호경	김호근	김호철	김환식	김효동	김효정	김효진	김희수	김희영	나금주	나인애	나정순	나주원	나희경
남순희	남옥임	남지현	노지원	노징남	노근여	류상영	류수민	류장근	류제현	류현욱	문경준	문언정	문주란
문해진	박경아	박경준	박경진	박명수	박미정	박봉서	박상미	박성진	박소연	박승기	박영규	박영서	박영우
박영호	박영희	박옥봉	박우암	박윤희	박은경	박은선	박인환	박정심	박종선	박종철	박지성	박지연	박지우
박진미	박찬승	박찬진	박창오	박치홍	박평호	박현숙	박현주	박홍순	방성주	방영복	배권현	배상순	배정호
배태선	백남식	백명기	백서연	백승현	백인호	백지현	백혜진	변용석	서개석	서광원	서동우	서만교	서성환
서영택	서점하	서정아	서종문	서현수	서현숙	설옥경	성모진	성백제	성선조	손연주	손정수	손지희	손진주
송경섭	송광민	송다인	송동호	송민희	송성민	송은수	송종진	송주복	신동선	신동직	신동진	신명철	신민경
신상태	신소애	신연숙	신영균	신영환	신정숙	신정인	신종범	신지영	신지원	신찬의	신현운	신혜림	심옥화
심은하	안경섭	안광재	안봉호	안순주	안영복	안익진	안훈숙	양가윤	양도혁	양무인	양미숙	양방언	양세라
양수진	양유경	양일용	양혜원	양희주	엄은식	여재욱	연제창	오명열	오소녀	오소향	오승교	오승봉	오영화
오진선	옥연호	우덕기	우태욱	원은주	원종현	유동철	유성종	유소영	유솔화	유승애	유승원	유재결	유정호
유지웅	유현수	윤경희	윤미란	윤석훈	윤선이	윤성숙	윤순정	윤영석	윤전애	윤창득	윤태연	윤희	이강수
이경분	이경애	이규태	이기석	이기혁	이기홍	이날/김용희	이누리	이동원	이루미	이명이	이병호	이봉연	
이상웅	이상진	이서현	이선경A	이선경B	이선숙	이선중	이선훈	이소현	이수진	이수하	이숙매	이숙원	이순옥
이순자	이슬기	이승목	이승수	이승연	이연숙	이연주	이영숙	이예원	이용래	이원분	이원희	이윤경	이윤성
이윤주	이은선	이은주	이은화	이인재	이재건	이재관	이재승	이재일A	이재일B	이정운	이정은	이정이	이정자
이정혜	이종범	이종서	이주현	이지수	이지영	이창수	이채만	이하늘	이형철	이효근	이효린	이효진	이훈구
이흔우	이희진	임병순	임봉욱	임삼미	임선주	임순화	임인순	임재숙	임태인	임혜숙	임호선	장기영	장미경
장미애	장미현	장민서	장수철	장신미	장열	장영숙	장영희	장윤지	장정식	장준서	장지원	장차열	전경숙
전명숙	전미선	전서진	전성화	전소연	전진성	정구혁	정권환	정규진	정미애	정미자	정봉근	정석현	정선옥
정수경	정연권	정영환	정예원	정윤정	정은경	정은채	정일량	정재룡	정재륜	정재원	정지선	정지연	정진우
정현희	정혜숙	정혜원	정희영	제민서	제하림	제환승	조명순	조명일	조미정	조성경	조수아	조양래	조양현
조영국	조영수	조예나	조우진	조종오	조현	조현욱	조현정	주영아	주준호	진성욱	진송이	진영희	차보영
차상윤	차영희	채서연	채한규	천의예	천정은	최경란	최경석	최대용	최미선	최상일	최석훈	최순환	최영은
최용주	최윤숙	최은숙	최은정	최인경	최정규	최채원	최필규	최화영	추승재	추환수	하규빈	하령자	하우용
하천일	한계수	한남임	한다은	한동민	한미숙	한미숙(서광교회)	한미현	한보화	한상봉	한향림	함현수	허경옥	
허웅	허정숙	허진호	형서윤	홍계복	홍성표	홍용자	홍윤경	홍은희	홍재곤	홍준수	홍춘자	황규애	황덕우
황명진	황별비	황별아	황상문	황선우	황의진	황인성	황재현	황제웅	황주철				

기업/단체

(주)김치빌리어드 남영산업	(주)오오씨엘코리아 링즈영어학원	(주)워킹피컴퍼니 세무법인 비전 대전지점	(주)커피비평가협회	(주)케미원	(주)코젠바이오텍
-------------------	----------------------	---------------------------	------------	--------	-----------

희망나눔가게

금산주요소	대도식당 안양점	(주)대흥포장
-------	----------	---------

유네스코 Future Makers

개인

TRESNAKIH			YACINTA			LOUISA			감도경	강대용	강대중	강동철	강미숙	강민선	강민채	강성원	강영희	강자청
강지성	강지수	강지호	강형빈	강혜경A	강혜경B	고민정	고영권	고영수	고예지	고옥선	고윤서	고윤철	고지숙					
고태완	고행오	공남희	공유훈	곽병준	곽상우	곽진	구기현	구덕모	구동관	구동현	구정일	권도형	권묘정					
권부연	권소연	권은주	권정란	권지원	권진숙	권진옥	권진택	권태현	금나영	기경민	김가비	김가희A	김가희B					
김강자	김건호	김건희A	김건희B	김경재	김경주	김경진	김경철	김경희	김고은	김광호	김궁희	김근희	김금솔					
김금준	김기찬	김기홍	김기환	김길원	김나라	김나연	김나운	김남수	김남숙	김다영	김대왕	김대현	김덕훈					
김도진	김도훈	김동균	김동현	김동희	김두례	김두용	김두준	김만석	김명국	김명삼	김미손	김미영	김미원					
김미정	김미현	김민상	김민석	김민이	김민주A	김민주B	김범석	김병수	김보나	김보옥	김봉균	김봉해	김산					
김상구	김상영	김서현	김석우	김선진	김성수	김성연	김성열	김성준	김성홍	김성환	김세동	김세연	김세현					
김세환	김소라	김수강	김수연	김수자A	김수자B	김수지	김순애	김슬아	김승길	김안순	김애선	김연주	김연희					
김영근	김영민	김영인	김영화	김예은	김옥경	김옥주	김용일	김용호	김용희	김우혁	김욱태	김원규	김윤설					
김윤일	김은진	김인곤	김인옥	김인철	김재선	김재수	김재희	김정선	김정숙	김정옥	김정은	김정중	김정철					
김정호	김종남	김종민	김종오	김종원	김주영	김준형	김준희	김지연A	김지연B	김지영	김지원	김지현	김진권					
김진량	김진원	김창환	김채은	김철리	김치훈	김태규	김태린	김태영	김태웅	김태인	김태호A	김태호B	김학경					
김한나	김해란	김현곤	김현수	김현자	김현지	김형희	김호수	김호영	김호철	김화중	김화춘	김환승	김훈기					
김희용	나민석	나영옥	나영일	나웅	나현주	남상욱	남운성	남유선	남유승	남정덕	남지희	남진영	남현령					
노다경	노영란	노진희	도정만	도희철	라창선	류다은	류보라	류승화	명재민	문명득	문성우	문성훈	문수환					
문용남	문윤주	문일곤	문지현	민병석	민성웅	민승자	박건영	박경태	박관형	박관흠	박광우	박광호	박규휘					
박근홍	박기식	박득춘	박영옥	박명재	박미경	박미선	박민건	박민선	박민수	박민희	박병렬	박보호	박상필					
박상훈	박선우	박선화	박선희A	박선희B	박성민	박세진	박소현	박수원	박수정	박숙희	박순례	박신서(동네청년)						
박시현	박연수	박영대	박영민	박영순	박영식	박영자	박예정	박유빈	박유정	박유진	박윤후	박은영	박은주					
박은혜	박재형	박정빈	박정수	박정인	박정현	박정혜A	박정혜B	박정호	박정희	박종안	박주석	박주혜	박준환					
박지원	박진솔	박진희	박창식	박철범	박태연	박태준	박하나	박해인	박현출	박형준	박환보	박효빈	박훈					
박흥제	박희진	방정학	배은정	배정환	배진석	배진한	배찬군	백경기	백경연	백영연	백운정	변은모	변채원					
빈지은	사우원	서강식	서경미	서동원	서병문	서수민	서수연	서영준	서옥희	서은진	서지향	서창용A	서창용B					
서철화	서호현	석요셉	석정금	선경호	선연희	성경환	성시윤	성지연	성한제	손보름	손상호	손석희	손용관					
손정옥	손철완	손혜림	손희경	송기준	송명규	송선용	송시훈	송용출	송인숙	송재열	송정화	송현서	송호천					
송희동	신대현	신민탁	신상윤	신승경	신승원	신요한	신용태	신원식	신유경	신유정	신윤정	신은자	신지애					
신지영	신진희	신훈	신훈철	심미순	심미옥	심상용	심지원	안갑식	안도겸	안도균	안상일	안서윤	안세은					
안세정	안세준	안소영	안수호	안승현	안예준	안재호	안정하	안흥기	양경용	양대석	양미애	양병권	양순화					
양승례	양연주	양예진	양우홍	양주란	양희수	엄태철	엄호룡	연장미	염경화	염광민	오경호	오남교	오덕근					
오덕주	오미경	오수길	오승철	오승호	오용진	오주혜	오하은	오현철	옥은지	옥천수	왕지훈	우남일	우단해					
우삼식	우진아	원세연	원순자	원용준	원종록	위민주	위성환	위행복	유경수	유경자	유광준	유기홍	유민철					
유성상	유신혜	유영미	유준곤	유하림	유하은	유현수	유혜정	유화중	육은길	윤규식	윤근영	윤대승	윤대준					
윤병순	윤상호	윤석주	윤정배	윤정혁	윤종열	윤진미	윤형준	윤혜원	윤훈현	이가연	이경우	이경임	이경찬					
이경훈	이권조	이근후	이금구	이금남	이기동	이기호	이남우	이남주	이대우	이도현	이동수A	이동수B	이동훈					
이득구	이명자	이명재	이무현	이민욱A	이민욱B	이민하	이범성	이병규	이병례	이병엽	이보남	이보락	이상국					
이상숙	이상원	이상훈	이상희	이서연	이석우	이석현	이석환	이선경	이선정	이선지향	이선희	이성욱	이성현					
이세경	이수만	이슬기	이승순	이승제	이승진	이승한	이승현	이안옥	이연주	이영규	이영숙	이영은	이영주					

이영직	이영진	이완우	이원상	이위봉	이운서	이운식	이운주	이유하	이은성	이은솔	이은숙	이은주	이응민
이일순	이재성	이재영	이재은	이정민	이정석	이정자	이종곤	이종기	이종철	이주현	이주호	이중옥	이지민
이지수	이지아	이지영	이지용	이지원	이지향	이지현A	이지현B	이지혜	이진우	이찬우	이창수	이창호	이태경A
이태경B	이태경C	이필레	이한기	이한길	이한솔	이현경	이현승	이현아	이현우	이형	이혜경A	이혜경B	이혜경C
이혜민	이혜영	이혜지	이홍금	이황표	이효건	이효숙	이후승	이희정	임건호	임계원	임광식	임미경	임병운
임상허	임성우	임성현	임시연	임용섭	임우정	임은채	임이완	임재경	임재규	임재림	임재민	임재성	임재학
임정민	임정화	임정희	임채미	임하은	임훈	장계훈	장미경	장석홍	장수빈	장우영	장윤희	장인기	장자은
장재은	장재우	장진호	전경호	전민화/전민호(전경엽)	전영석	전영신	전영환	전은경	전종민	전주영	전택수		
전형구	전홍철	전환식	정동수	정동현	정미자	정미희	정병인	정상규	정수현	정신영	정아윤	정은서	정은영
정익근	정익성	정인석	정재욱	정재윤	정재천	정재한	정준호	정중현	정지숙	정지윤	정초윤	정형섭	정혜경
정혜미	정희숙	조강희	조경래	조경미	조경부	조경호	조기하	조기현	조동환	조문경	조봉호	조석영	조소은
조소희	조수빈	조수용	조수진	조수현	조순옥	조승리	조시현	조옥선	조욱연	조원빈	조은	조은비	조정의
조하연	조현근	조현문	조현욱	조현웅	조홍찬	주기승	주명욱	주상현	주종민	주진	주진봉	지덕규	지수현
지형두	진기호	진영순	차경연	차광윤	차명주	차선근	채성묵	채성현	채승훈	채지윤	채홍준	천미림	천영란
최기홍	최명림	최명진	최문희	최병용	최병익	최병일	최병조	최상국사세	최상숙	최상은	최선하	최성호	
최성호	최순덕	최신식	최연실	최영금	최영민A	최영민B	최영주	최은성	최원만	최유진	최유희	최윤지	최은경
최은용	최인수	최장명	최재명	최재현	최재혁A	최재혁B	최정운	최정은	최정화	최지미	최지안	최지욱	최지인
최지혜	최창욱	최혜은	최혜진	최호순	최효상	최훈	최희선	추명호	표지은	피지환	하돈형	하미옥	하윤지
하주영	하회근	한건수	한경구	한기명	한기석	한미라	한병호	한소원	한영주	한완영	한윤희	한정윤	한정화
한호	함미애	함운식	함진숙	허남숙	허승배	허재욱	허종	허지원	허지윤	허지훈	허철행	현정희	홍경숙
홍도순	홍문기	홍석영	홍성화	홍수기	홍슬비	홍승환	홍재곤	홍제우	홍지원	황다연	황도원	황명식	황미선
황병두	황서경	황선녀	황선영	황옥성	황옥진	황준식	황현주						

기업/단체

(주)서광하이텍	(주)어반비즈서울	(주)영진제어	(주)유니크테크노
(주)중앙전자통신	ASPIRE고려대학교지부	갤러리샬Gallery Sal	경기대학교UN청년연합회
디자인벽지(주)	류와건축사사무소	망고	삼광씨앤비주식회사
상신정보통신(주)	세무사 이행종 사무소	순복음좋은교회	심향사
줄앤줄	태웅건설주식회사	크라운호프 운서센터럴시티점	

희망나눔가게

(주)제스아이티

일시후원

학교

초등학교(17학교)

광일초등학교	군내초등학교	금구초등학교	김포호수초등학교	대구새론초등학교	도마산초등학교
벽방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여수신월초등학교	용머리초등학교	용연초등학교	울산월계초등학교
인천별빛초등학교	인천첨단초등학교	인천청량초등학교	제석초등학교	합천가야초등학교	

중학교(12개교)

늘푸른중학교	대청중학교	도래울중학교	선인국제중학교	수원연무중학교 유네스코반	
신봉중학교	신선중학교	염광중학교	철원여자중학교	태광중학교	하늘빛중학교
한솔중학교					

고등학교(51개교)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경화여자고등학교
고창북고등학교	구미제일고등학교	김해울하고등학교
남성여자고등학교	대구경원고등학교	대구운암고등학교
도림고등학교	도초고등학교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동원고등학교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유네스코동아리	
명덕고등학교	명신여자고등학교	문산수억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부안고등학교	부천소명여자고등학교
삼성여자고등학교	서울국제고등학교	서울영일고등학교
선인고등학교	성광여자고등학교	성남외국어고등학교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수원고등학교	순천여자고등학교
쌍뿔여자고등학교	양곡고등학교	양업고등학교
옥련여자고등학교	옥천고등학교	용인고등학교
운암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장곡고등학교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진량고등학교
천안두정고등학교	청심국제고영어번역동아리ETOCS	청심국제중고등학교
충렬여자고등학교	태광고등학교	태전고등학교
풍생고등학교	한국관광고등학교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
함안고등학교		

기업/단체/개인

KJSA	Wednesday	경기도교육청(유네스코국제포럼담당)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경상남도교육청	기후환경교육추진단
고려대학교 102학군단	교육부중앙교육연수원(동호회 줄고킹go)	숙명여자대학교 KUSA
(주)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부산성우학교 청소년비즈쿨동아리	지혜로운독서모임
청소년활동진흥원	처브라이프생명보험	2024 한세장터

한양대학교사범대학학생회

강남구	강상규	강수현	강예은	고진미	곽민경	곽윤아	권의재	권인경	김갑수	김계신	김광민	김광은	김광희
김근기	김기웅	김나래A	김나래B	김나영	김나현	김남경	김다영	김다은	김도희	김동식	김동일	김미란A	김미란B
김미연	김미정	김민규	김민정	김민채	김범년	김병삼	김보림	김서희	김석우	김석주	김성울	김세진	김소연
김소유	김소정	김수민	김수현	김시은	김아인	김영규	김영희	김예진	김용범	김은도	김은영	김이루다	김은채
김인경	김인주	김정오	김정은	김종민	김종진	김종훈	김주영	김지성	김지현	김진서	김진영A	김진영B	김진영C
김진웅	김진원	김하은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형신	김환석	김희원	나유경	나현주	남궁윤호	남상숙	남정덕
남지숙	남지희	노지원	도영hil	류호준	문지영	민이주	민채령	박건영	박규휘	박기형	박누리	박다선	박도연
박명희	박민선	박민우	박민찬	박상철	박상희	박서현	박여주	박예지	박은애	박은정	박인범	박정환	박주연
박주현	박진미	박해윤	박한보	박효은	박희란	백은선	백지영	변재아	사공정민	사공지원	서유미	서유진	서윤지
서정열	서종문	서진하	성경환	성인아	세븐틴	우지	손미숙	손설현	손준민	손준혁	송경민	송미정	송현지

송혜성	송혜주	신소애	신종범	신하은	신화남	심영은	안경숙	안혜빈	양문영	양희진	엄수빈	엄수정	에녹댄스
오건은	오다경	오산정	오승헌	오윤수	오재만	오혜정	우서현	원다혜	유광열	유병덕	유병준	유솔	유승연
윤병순	윤선이	윤성숙	윤수민	윤안나	윤영	윤하빈	이경란	이동현	이루리	이명학	이미영	이병엽	이사라
이서영	이서인	이선경A	이선경B	이선정	이성국	이성녀	이승은	이송이	이승혜	이승환	이승희	이시한	이연서
이영범	이예지	이목순	이용주	이유라	이은서	이은형	이익빈	이재병	이재성	이재혁	이정미	이정민	이정석
이정연	이정인	이주희	이준성	이지숙	이지영	이채린	이충호	이하늬	이하영	이해나	이해준	이현준	이형철
이효숙	인남순	임광식	임서현	임소영	임숙경	임지호	임한누리	임현우	임훈	장미현	장수빈	장혜림	전구슬
전아인	전연화	전진성	전채희	전현미	정경아	정경철	정병희	정성희	정소영	정승혜	정승환	정아름	정양수
정연승	정예린	정원경	정재엽	정지은	정진열	조미숙	조민지	조석강	조아현	조연진	조영기	조은율	조하윤
정원빈	정윤이	조혜란	조혜영	조희순	조희진	주영아	주준호	주지숙	주하은	차슬기	조효신	채재은	천원범
최가인	최고은	최규호	최미경	최서연	최서영	최서윤	최서하네가족	최소현	최순옥	최우형	최윤영	최인영	
최재훈	최충호	최혜형	하윤혜	한경구	한성구	한승미	한승우	한재민	한종훈	한준구	한지원	한지혜	한폴
한홍구	허완	호수아	홍도순	홍문숙	홍민지	홍석기	홍지명(놀라운 교회)		황미선	황선익	황은지	황지수	

한경구 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과 가족, 1억 원 기부 약속

고(故) 한만년 창립자의 뜻을 기리며, 유네스코의 가치 확산에 동참



고(故) 한만년 일조각 창립자 자녀 일동(오른쪽부터 한성구, 경구, 준구, 홍구, 승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부 기념식

고(故) 한만년 도서출판 일조각 창립자의 뜻을 기려, 한경구 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과 가족들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총 1억 원을 약정해 주셨습니다. 이 후원금은 앞으로 10년간 매년 1천만 원씩 전달되어, 유네스코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고(故) 한만년 창립자는 오랜 시간 유네스코 아시아 지역 출판 전문가로 활동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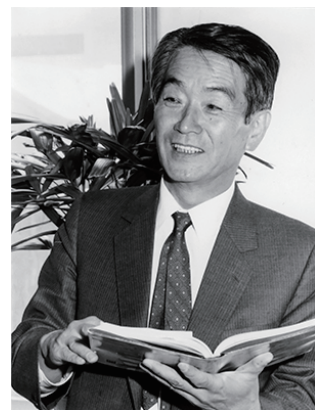
한국과 아시아 출판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그의 출판 철학과 유네스코와의 협력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부는 한경구 전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형제자매인 한성구, 한준구, 한홍구, 한승미 씨 등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더욱 뜻깊은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학문과 교육을 통해 지식 나눔에 힘써온 분들입니다.

기부금은 특히 유네스코의 메시지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확산하는 데 집중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평화, 공존, 지속가능성이라는 유네스코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에게 쉽고 감동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경구 전 사무총장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유네스코의 가치가 더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유네스코 활동에 공감하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고인의 유지를 이어받아 후원을 실천한 유족들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Future Leader'로 함께하게 되었으며, 이 따뜻한 나눔은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발걸음에 큰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故) 한만년 일조각 창립자

후원금 모집 및 사용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남다른 강점으로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 ① 유네스코헌장 제7조에 따라 유네스코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위원회입니다.
- ②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 ③ 기부금품법에 따라 재정 관리의 투명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 ④ 후원자님의 후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것을 약속합니다.



국제사회의 인정
전 세계 200개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중 최고의
역동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소집력(Convening Power)
정직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영향력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모으는
소집력을 발휘합니다



지적 통찰력
국제사회 주요 이슈를
파악하여 한국 사회에
유익한 정보를 분석하고
보급합니다



네트워크
다양하고 폭넓은 국내외
네트워크 및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후원금 모집과 사용 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내·외부의 회계감사를 시행합니다. 웹사이트,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서 후원금 사용 내역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의 85~87%는 사업비로 쓰이며, 모집경비는 13~15%로 시민과 학생 대상 세계시민교육 활동과 모금 참여를 위한 국내 캠페인 추진 및 유네스코 활동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비로 쓰입니다.

후원자님이 보내주시는 후원금의 85~87%는 선택하신 기금분야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며, 나머지 13~15%는 후원사업 홍보, 캠페인 발굴 및 후원관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미래변화대처기금] 기후변화, 과학기술의 발달, 경쟁 심화, 인구 증감 등과 같은 사회 변동으로 인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전문분야 연구를 지원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등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미래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에 사용됩니다.

[교육격차완화기금] 차별없이 모두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교육에서 소외된 이웃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미래세대가 더 나은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을 지원합니다.

[사회·문화갈등해소기금] 국가 간 유산 갈등을 비롯해 전쟁, 혐오 등의 충돌과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회 대화를 촉진하고 국가간 교류 및 협력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간 이해를 증진하는 평화촉진 활동에 사용됩니다.

후원자님의 값진 마음, 이렇게 모였습니다

2024 후원금 수입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금은 크게 일반후원금과 정부지원금으로 나뉘며, 일반후원금은 개인과 단체 및 기업, 학교에서 기부한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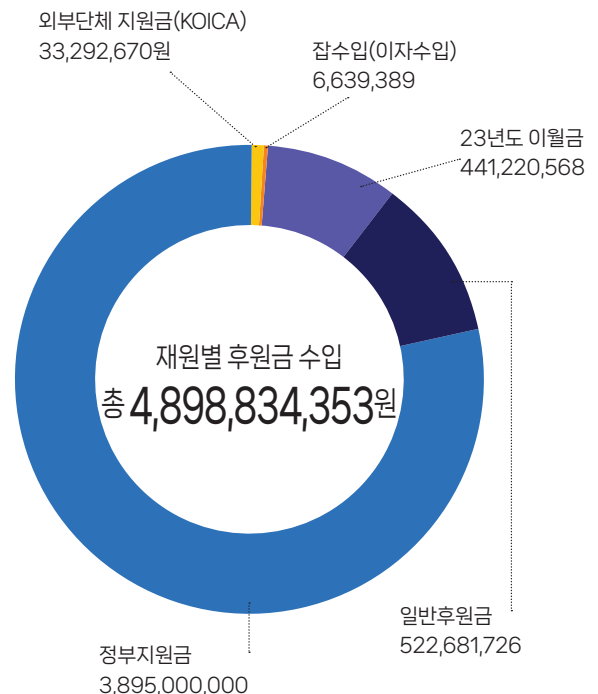
월별 일반후원금 수입(정부지원금 등 제외)

금액 단위: 원			
1월	31,916,728	7월	32,014,549
2월	32,685,009	8월	130,341,719
3월	31,475,598	9월	34,686,539
4월	28,390,299	10월	50,868,629
5월	29,750,400	11월	42,348,743
6월	33,138,294	12월	45,065,219
합계	522,681,726		



재원별 후원금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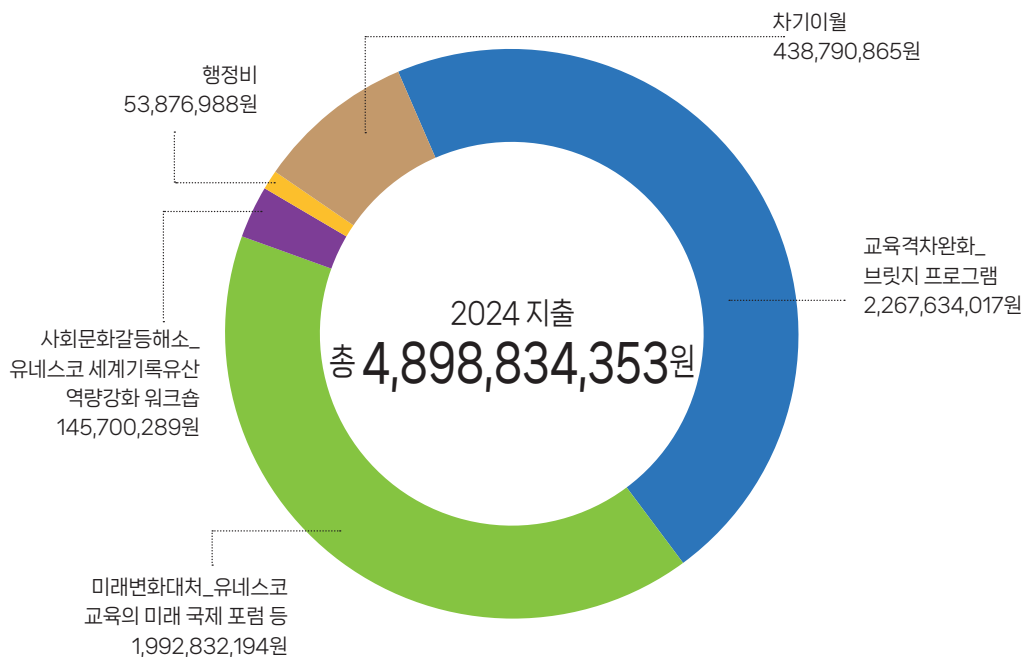
금액 단위: 원		
재원구분	세부구분	금액
일반후원금	일반대중 후원금	382,247,308
	기업 지정 후원금	105,060,000
	학교 나눔 활동 후원금	35,374,418
정부 지원금 (교육부, 국가유산청)		3,895,000,000
외부단체 지원금 (KOICA)		33,292,670
잡수입(이자수입)		6,639,389
2023년도 이월금		441,220,568
합계		4,898,834,353



후원자님의 값진 마음,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2024 후원금 지출(정부지원금 등 포함)

사업명	집행금액				합계	차기이월
	일반대중 후원금	기업후원금	정부지원금	외부단체 (KOICA)		
교육격차완화 브릿지 사업	295,403,009	63,938,338	1,875,000,000 (교육부)	33,292,670	2,267,634,017	387,156,009
미래변화대처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 등 * 비후원성 사업에 해당하는 지원은 제외하고 집계	22,101,038	50,731,156	1,620,000,000 (경기도교육청) 300,000,000 (교육부)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		1,992,832,194	
사회문화갈등해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역량강화 워크숍	45,700,289		100,000,000 (국가유산청)		145,700,289	
행정비	40,608,538	13,268,450			53,876,988	51,634,856
차기이월	399,393,712	39,397,153			438,790,865	
합계	803,206,586	167,335,097	3,895,000,000	33,292,670	4,898,834,353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모두가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다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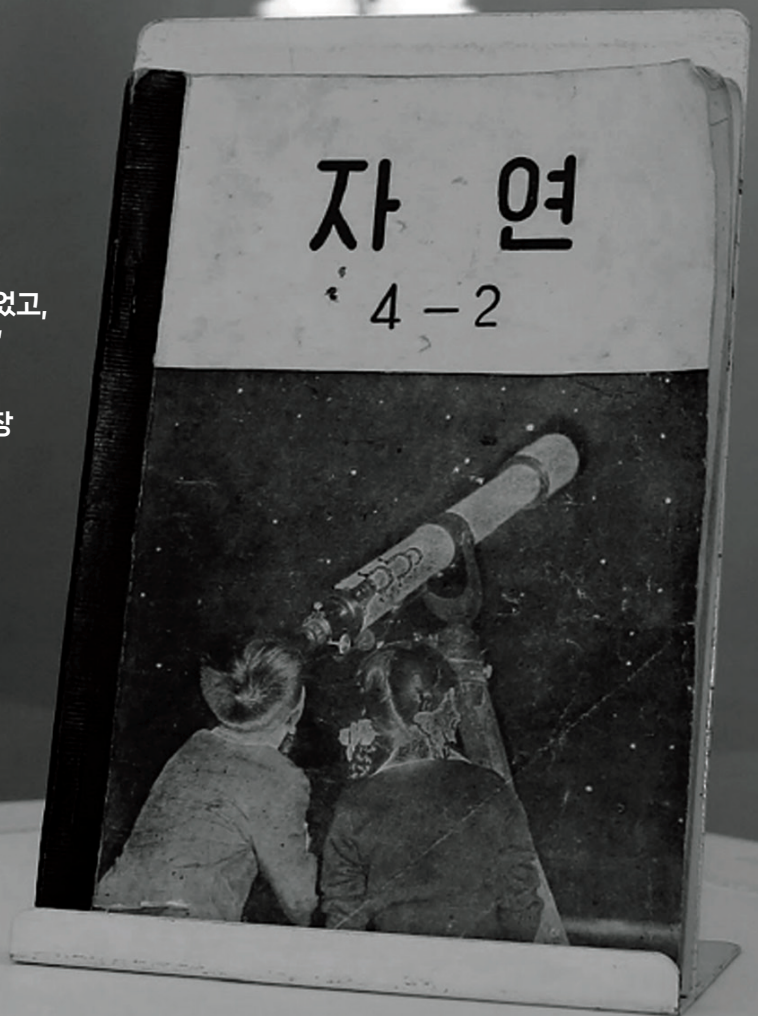
대한민국은 1945년 광복 직후, 유네스코 가입을 적극 추진하였고,
1950년 6월 14일 유네스코의 55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가입 직후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에
교과서 인쇄공장을 설립해 줌으로써 교육을 통한 재건을 도왔으며,
대한민국은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유일무이한 국가로
유네스코가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성공 사례로 거듭났습니다.

"전쟁 후 유네스코의 지원 덕분에
우리는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었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 책은, 유네스코와 우크라이나에
서 인쇄기계의 기증을 받아 설치
된 국정교과서 인쇄공장에서 박
은 것이다.

문 교 부 장 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전시 중인 6.25 전쟁 직후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발간된 초등학교 교과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난 70년간 시대를 앞서 더 바람직한 미래를
이끌었습니다.

유네스코는 우리가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우리 손에 책을 쥐어주었고 이는 한국의 민주화, 산업화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학교교육이 교육의 전부일 때, '평생교육'을 소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경제발전만이 목표가 될 때, '지속가능발전'의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습니다.
재산으로서의 문화'재'가 아닌, 인류 공동의 문화 '유산'의 개념을 널리 확산시켰습니다.

문제의 현상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흔히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합니다.
하지만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물고기를 계속 잡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듭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기부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O경O 고액후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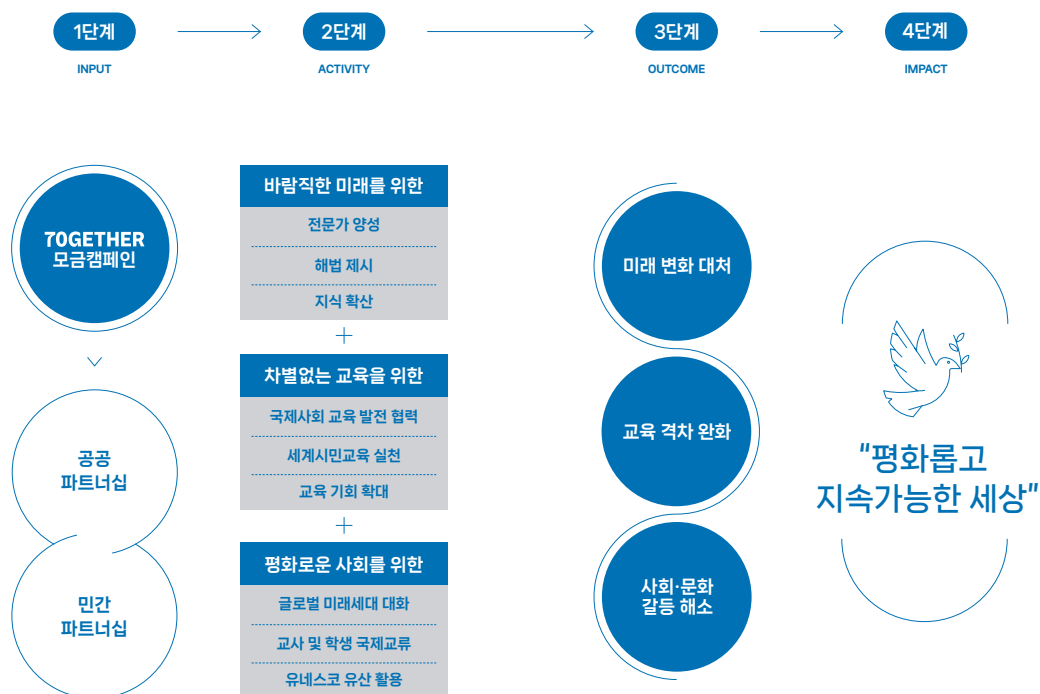
70년의 역사를 넘어 함께 만드는 미래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2026년까지 3년 간 '7OGETHER' 모금캠페인을 진행합니다. 7OGETHER는 '함께'를 뜻하는 영단어 TOGETHER의 TO를 숫자 '70'으로 표현한 것으로, 지난 70년의 역사를 넘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미래 변화에 대처하는 힘을 키우고, 배움의 기회를 얻으며, 다양성을 품는 미래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7OGETHER

캠페인 로드맵



우리의 미래를 위해
변화가 필요합니다

유네스코
FUTURE MAKER가
되어 미래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유네스코 축구공(共) 캠페인



"11명의 선수들은
축구공으로 하나가
됩니다.
축구공은 사람을
연결시키는 힘이 있어요.
한번의 패스, 한번의 킥에
동료를 향한 존중과 응원,
그리고 온 마음을 담습니다."

- 이재성 선수

학교에서,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혐오의 말들은 지금도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있습니다



차별·혐오표현을 경험한 학생 **51.6%**



사이버따돌림 피해 경험(1년에 한 두 번) **81.2%**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 응답자 **83%**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KOSIS 국가통계포털,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72-2호)

아이들은 말합니다,
앞으로도 혐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거라고요.
혐오를 멈추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혐오 대신 공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는 축구를 통해 "공존의 룰" 을 가르칩니다.

당신에게는 혐오를 평화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혐오Out평화In

#HateOutPeaceIn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은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축구를 통해 존중과 화합을
배우는 일에 뜻깊게 사용됩니다. 지금 바로 '유네스코 축구공인'에
참여하여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마음에 혐오를 덜고 평화를 더해주세요!

캠페인 더 알아보기 →



투게더, 함께일 때 더 빛나는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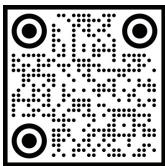


함께 미래를 만드는
투게더 브레이슬릿

여러분의 손목에서 시작되는 희망은
더 많은 사람들이 미래 변화에 대처하는 힘을 키우고,
배움의 기회를 얻으며,
다양성을 품는 미래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듭니다.

* 기존 후원자님의 경우, 3만원 이상의 일시후원을 통해 투게더 브레이슬릿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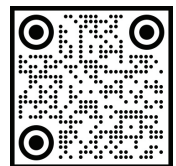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 참여하기

후원계좌 국민은행 375301-04-106542(예금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문의 1800-9971

2024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사업 연차보고서

펴낸날	2025년 6월 30일
펴낸곳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펴낸이	윤병순
엮은이	후원홍보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홈페이지	https://peace.unesco.or.kr
전자우편	peace@unesco.or.kr
간행물등록번호	PR-2025-RP-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기후원 신청하기

대한민국은 1950년 6월 14일에 유네스코에 가입하여 55번째로 유네스코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가입 직후 벌어진 한국전쟁 중에도 정부는 유네스코 활동을 펼치기 위해 국가위원회 설립을 추진했고,
마침내 1954년 1월 30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의 이념을 국내에 전파하는 한편, 유네스코, 대한민국 정부, 국내외
유네스코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며,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미래
Creating a Better Future Together

